

소소한 일상의 추억노트를 공유하다

내일부터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김누리 개인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오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누리 개인전'이 열린다.

김누리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귀금속공예디자인과를 졸업했으며, 이번 전시는 4번째 개인전이다. 2019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2018 국제아트페스티벌, 2017 전북나우아트페어 등에 참여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그룹전 및 기획·초대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누리의 작업은 도시를 거닐며 상징과 가계를 경험해보고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일상적 감정에 충실하며 이를 작품으로 기록하는 추억 노트와 같다.

그의 작업은 도시에 준비하게 들어선 상징의 간판과 장식적인 벽면, 소원도 등의 이질적인 차원들이 하나의 층위로 물성화 된 알레고리가 시간과 세월이 만들어낸 면과 면에 켜켜이 쌓인 흔적이며 상흔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론적인 그림이고 작업이다.

작품 특성상 상징 앞면과 벽 자체에만 몰입하다 보니 입체적인 부분은 소거되어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출입문과 소원도 형태가 시야에 들어온다.

무엇보다 벽면 분할과 조밀한 패턴은 표피나 결의 흐름처럼 이미지를 쉽게 복사하고 짜깁기하듯이 비슷한 모양과 무늬를 반복하고 중첩해 화면을 구성한다.

관객이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설치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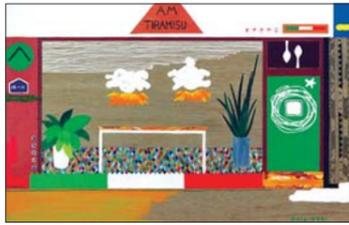
처럼 이미지의 공간처럼 보이며, 이미지의 공간 안과 밖 사이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이내 곧바로 디테일하게 조금씩 공간을 읽어갈 수 있다. 옷이 구획된 벽면 구조와 창문 출입문 간판 자체의 조형적 특징을 음미하도록 모든 구조는 해체되고 재조합되면서 서서히 시각적으로 드러난다.

익숙한 일상의 오브제들 사이에서 관객은 잠시 멈춰서지만, 각양각색으로 꾸며진 소원도와 입구 간판의 형태는 어떤 모양이든 카페나 음식점으로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화면에 그대로 드러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리듬과 키치로 상호교차하며 결합한 화면은 아련히 빛바랜 추억을 들춰낸다.

이는 나름의 전치나 병치 등의 여러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간 영역을 만들어내어 기억간의 상호작용과 편린을 재조립하는 과정과 흡사하다. 마치 음악처럼 반복되는 패턴의 착시효과로 인해 그림은 하나로 통일된 모종의 분위기와 유한한 형상에 갇힐 수 없는 것과 순수한 조형의 프레임 안에서 충족될 수 없는 것들을 담고 있다.

김누리는 이미 공간과 전시전력 그 자체가 미술의 의미와 맥락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회화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무의식적인 세계를 거닐며 디지털 세상에서 자칫 상실될 수 있는 추억을 다시금 자극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번 전시를 선보인다. /김진성 기자



아이엠 티라미슈.



브루클린의 초록집.



카페히바나.



정음시립국악단의 서울공연이 최근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졌다.

서울에 울려 퍼진 정음 풍류

정음시립국악단, 서울공연 성료... 250여명의 관객 참석

정음시립국악단(단장 주호중)의 서울공연이 최근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졌다.

정음시의 서울공연은 서울의 상생 협력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공연은 25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공연은 관현악곡 '정음 판타지'를 시작으로 춤과 노래와 연주가 풍성하게 어우러진 '느·르하가'와 '정음풍류가'를 선보였다.

또, 국악가요 '정음사 월명가'와 '정음노정기'로 정음의 이야기를 서울시민들에게 들려줬다.

이어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팔도 아

리랑 연곡'으로 관객을 하나로 만들고 몸을 들쭉이게 하는 경쾌하고 빠른 리듬의 북과 춤의 향연 '샬터종고'로 무대의 대미를 장식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시민은 "국악 공연이라고 해서 치분한 마음으로 보러 왔는데 너무나 열정적이고 흥겨운 공연이었다"며 "국악과 민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 세계질 아름다운 내장산과 구절초 테마공연, 동학농민혁명, 백제가요 정음사 등 정음의 자랑스러운 서울시민들에게 정음방문의 해를 홍보했다. /정음=김태환 기자

고창군, 한반도 첫 수도 역사재조명 학술대회 열어... 지역 사학계 총출동

고창군이 최근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역사문화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창의 역사문화자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학문적 성과를 종합 정리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고창문화원, 우리문화연구원, 전북사학회와 군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먼저, 전주대 이재운 교수가 '고창의 역사와 문화, 기억·변화 그리고 꿈'이라는 기초강연으로 학술대회의 막을 열었다.

이 교수는 "고창은 전세계 최고의 고인돌 밀집지역이고, 마한시대 고분군 등 수천년에 걸친 사람의 이야기가 쌓여 있다"며 "이를 잘 보존하고, 연구·이해해 후대에 물려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광대 최완규 교수의 '고창의 역사가 시작되다-고인돌 땅 속에서 찾은 문화유산', 공주대 백원철 명예교수의 '고창의 정신을 세우다-선비정신', 전주대 홍성덕 교수의 '고창의 역사 속에서 하나로-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전북대 박물관 김성식 전임연구원의 '고창의 제천·풍류를 즐기다-당산제·판소리'의



고창군이 최근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소주제가 발표 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은 선사시대부터 마한시대 이르기까지 세계 제일의 거석문화를 꽃 피웠던 찬란한 역사문화를 간직한 도시"다

며 "고창에 잠들어 있는 한반도 첫 수도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발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가을은 참 예쁘다' 개최

부안군(군수 권인혁)은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로서 포크싱어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공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탁반 레인보우가 함께 연주한다.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는 올해 처음으로 자립거점기관으로 거듭나면서 60여명의 오케스트라단 단원과 50여명의 가족오케스트라단 등 한층 더 성장된 모습으로 구성됐다.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연주실력을 가족, 친구, 지역민들 앞에서 마음껏 뽐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연은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공연을 시작으로 레인보우,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부안가족오케스트라 연주가 이어진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40여명의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단원과 10여 가족의 가족오케스트라 단원의 합동공연도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내년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에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매개로 연주능력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협동심, 배려심 등 성장시기에 중요한 요소들을 몸소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선착순 무료 입장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